

국제가상천문대연맹(IVOA)과 각국 가상천문대의 현황

김상철, 성현일, 김봉규, 김종수, 남현웅

한국천문연구원

미국이 10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·중형·소형 과제 중 소형과제 가운데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사업이 미국 국립가상천문대(National Virtual Observatory: NVO) 건설사업이다. NVO는 미국 국립과학재단(National Science Foundation: NSF)으로부터 5년간의 정보기술 관련 연구비로 1천만\$(~120억 원)을 받고 있다. 미국, 영국과 European Southern Observatory (ESO)가 독자적으로 3~5년의 계획으로 추진하는 가상천문대 사업들의 총 예산이 200억 원을 넘으므로 인력과 장비,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국제적인 표준을 확립하고자 이들 3개국이 2002년 6월에 국제가상천문대연맹(International Virtual Observatory Alliance: IVOA)을 만들었다. 캐나다, 인도, 독일, 호주, 러시아 등이 끝이여 가입했고, 일본과 중국이 2002년 말에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은 10개국(ESO를 포함해서)이 되었다. 2003년 2월에는 한국도 한국가상천문대(Korean Virtual Observatory (KVO): <http://kvo.kao.re.kr>)의 조직과 함께 IVOA에 가입함으로써 11번째 회원국이 되었다. 여기에서는 국제가상천문대연맹과 여러 개별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가상천문대 구축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겠다.